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1995. 4.

金 聖 哲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金 炳 魯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李 琴 順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目 次

I. 問題의 提起	1
II. 承繼體制의 象徵的 正當化	3
1. ‘유훈동치’를 통한 理念的 繼承 強調	3
2. 카리스마 轉移 및 리더쉽 浮刻	5
III. 軍事的 權威體系의 鞏固化	9
1. ‘최고사령관’ 中心의 權威關係 確立	9
2. 軍部の 支持 確保	10
IV. 社會統合 強化	14
1. ‘인덕정치’ 및 ‘광복정치’를 통한 住民 包容政策	14
2. 組織別 思想教育 強化	15
V. 實質的 業績 成就를 위한 努力	18
1. 農業問題 및 生必品不足 解決策 講究	18
2. 對外關係改善 및 經濟協力 強化	20
VI. 綜合評價	23

I. 問題의 提起

-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權力承繼를 위한 制度化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승계과정이 정치적 危機로 발전하는 경향을 띠게 됨.¹⁾
 - 후계자 선출에 관한 규칙이 없으며, 후계자 결정 이후 그의 권력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임.
 - 승계과정에 따른 정치적 위기는 대부분 엘리트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며, 기존 권위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 이 과정에서 군부나 비밀경찰 등 무력기관이 중요한 조정역할을 하게 됨.

- 북한에서는 金日成의 돌연한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생전의 치밀한 권력승계 준비작업 결과 후계자 선출을 둘러싼 엘리트 갈등의 소지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金正日의 공식적 승계는 시간문제일 뿐 既定事實化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광을 바탕으로 20여년 동안 당 조직지도부 및 선전 분야에 깊이 관여해 왔음.
 - 자신 명의의 주체사상 관련논문 발표와 선전매체들의 밀도 있

1) Myron Rush, "The Problems in Communist Regim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2, no. 1 (Spring-Summer 1978), pp. 169~70.

는 이상화 작업을 통해 김일성으로부터의 카리스마 轉移를 피
해 왔음.

○ 김정일 승계체제의 안정여부는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엘리트의
위기관리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인 바, 승계체제의 위기관리 능
력은 ① 象徴的 正當化, ② 군사적 權威體系의 확보, ③ 社會統合
政策, ④ 실질적 業績成就 등의 과제해결을 통해 검증될 것임.

- 상징적 정당화는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임.

- 군사적 권위체계는 권력의 강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후계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

- 사회통합정책은 권력교체에 따른 불안정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포섭을 위해 필수적임.

- 업적성취는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의 보상으로서 주어져
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임.

○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金日成 死後 북한이 취해온 승계체
제 鞏固化 과정을 위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평가함으로써 향
후 김정일체제의 안정성을 展望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II. 承繼體制의 象徴의 正當化

1. '유훈통치'를 통한 理念的 繼承 強調

- 기존 사회주의체제에서 후계자는 전임자의 것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正當化 이데올로기(legitimizing ideology)를 創出하여 새로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여 왔음.
- 소련의 스탈린은 '농업과 공업에 있어서의 新路線'을 통해 선진 서구국가를 "따라잡고 앞지르자"(to catch up and to leave behind)라는 기치 아래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였음.
- 후르시초프는 '전인민의 국가'(All-People's State)라는 체제 정당화를 위한 강령을 채택하여 사회주의가 단순히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계급청산 단계를 넘어서서 전인민에 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며 민주적인 지배양식을 취할 것임을 주창하였음.²⁾
- 고르바쵸프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기치 아래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였음.
- 중국의 鄧小平은 중국적 사회주의의 구호 아래 改革·開放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합리화하였음.

2) Roger E. Kane, "The Rise and Fall of the 'All-People's State': Recent Changes in the Soviet Theory of the State," in Lenard J. Cohen and Jean P. Shapiro,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NY: Anchor Press, 1974), pp. 145~59.

○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후 새로운 정책 제시 대신 김일성의 노선견지 및 '유훈관철'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 「로동신문」은 1994.7.20 이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줄곧 사용하고 있으며, 1994.8 중순부터 김일성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는 쫓기모임을 꾸준히 보도³⁾하고 있음.

○ 김정일의 통치이념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는 바, 1994.11.1 발표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제하의 김정일 논문⁴⁾에서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었음.

-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經濟決定論을 비판하면서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를 세워야 함.
-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반면 집단주의가 사람의 본성적 요구임.
-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통해 역사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야말로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주장임.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성취하자”(1994.8.1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1994.8.3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1994년 7월 6일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1994.8.30, 9.6).

4) 「로동신문」, 1994.11.1.

- 김정일 승계체제는 엘리트 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父子間의 권력 승계를 통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권위가 아직 북한주민들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치 이념상 대체로 김일성과의 繼承性을 보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김정일 자신의 이데올로기 부재는 김정일 승계체제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카리스마 轉移 및 리더쉽 浮刻

- 북한은 승계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자간 카리스마의 轉移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 부각을 통해 카리스마 조작을 강화하고 있음.
 - “아버이 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이다”는 구호에서 극명히 드러남.
-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태어날 때부터 후계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歷史的 必然性을 부여하기 위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소위 ‘3대 위인’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 “김정숙의 불멸의 업적은 김정일을 낳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을 마련한 것”⁵⁾이라고 하면서 종전 김일성에 대한 그

5) “김정숙 사망 45주년 추모사에서 한 최영림(정무원 부총리)의 보고,” 「중앙방송」, 1994.9.22.

녀의 충성심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김정일의 후계체제와 연관 시킴.

- 김정일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부각을 위한 북한의 노력은 천재성과 孝誠의 부각, 김일성의 傾斜筆體 모방, 김정일 생일(2.16)의 '민족최대의 명절' 제정⁶⁾ 등 대체로 전통적인 偶像化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김정일이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기 위해 마르크스·엔겔스·레닌의 저서를 3년만에 독파했다고 그의 천재성을 선전함.⁷⁾
 - 김정일의 승계지연을 효성과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⁸⁾으로 설명하고 있음.
 - 김정일이 김일성의 경사체 글쓰기를 이어받았다고 하면서 '서예의 극치' 라고 선전하는 동시에 '따라배우기'를 강조하고 있음.

- 김정일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은 1994년

6)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95.2.7)은 “김정일이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고 빛내이며 영원히 기념키 위한 것”이라고 그 제정 이유를 밝히고, 김정일을 칭송하는 「우리는 충성한다」, 「우리는 맹세한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등의 정책가요를 군인과 청소년들에게 집중 보급하고 있음.

7) 「평양방송」, 1994.10.22, 31.

8) 「평양방송」, 1995.1.15.

10월의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이 김정일의 領導力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김정일은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석주 등 회담대표를 위한 연회를 개최(1994.11.6)함으로써 이를 과시하였음.

-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미·북한간 핵협상타결 관련 「보도」(1994.10.20)에서 김정일이 북한 대표단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설명함.
- 한민전 중앙위의 지지성명(1994.10.29), 조총련 중앙상임위의 지지성명(1994.10.30) 등은 합의문을 이끌어내고 클린턴 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받아낸 것은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라고 선전하였음.
- 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 기념보고대회(1994.12.23)에서 군총참모장 최광은 북·미 핵협상 타결을 “김정일이 강대 세력과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승리로 이끈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김일성의 카리스마와는 달리 김정일의 카리스마는 대부분 조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자간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격한 능력 차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比較視角을 제공할 뿐 카리스마의 轉移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임.⁹⁾

9) 베버(Max Weber)에 의하면, 카리스마란 타인이 소지하지 아니한 독특한 권능을 입증함으로써 획득되고 그렇지 못하면 쇠퇴함.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pp. 245~50.

-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이상화 작업을 통한 상징조작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 사회주의의 건설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엘리트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Ⅲ. 軍事的 權威體系의 鞏固化

1. '최고사령관' 中心의 權威關係 確立

- 북한은 승계체제를 최고사령관 중심의 非常體制(emergency regime)化함으로써 '수령과 전사'라는 수령론에 입각한 권위관계를 확립하고 김정일의 수령에 대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함.
- 1994.11.9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最高 司令官으로서의 김정일의 권위가 인민군의 首位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 인민에 대한 통치권 행사인 동시에 인민무력부와 정무원보다 절대우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음.
 - 북한방송이 「중대보도」로 발표한 이 명령은 평양시 청류다리 2단계 공사와 금릉 2동굴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인민무력부에는 작업을 지시하고 정무원에는 자재 및 설비 공급을 지시 하였음.
- 김정일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권위행사는 평상시 법절차에 따른 것 이라기보다는 비상시의 초헌법적인 大權行使로 볼 수 있음.
 - 1992.4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무력을 지휘 통솔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제113조)하도록 되어 있어 최고사령관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며 무력에 대한 통솔도 최고사령관이 아닌 국방위원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음.

- 북한은 이같은 최고사령관 중심의 비상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 기념회(1994.12.24)를 예년의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성대히 개최하였음.
- 북한은 당창건 기념일(1994.9.9) 행사를 대체로 간소하게 치른 반면,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1994.12.23)에는 당·정·군 고위 간부들을 대거 참석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사를 실황중계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최하였음.

2. 軍部の 支持 確保

- 권력승계가 非制度化된 사회에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승계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요건인 바,¹⁰⁾ 김정일이 군 경력이

10) 중국의 경우 鄧小平이 자신의 체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군사권력의 핵심 직책을 차지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당 중앙위 10기 3차 회의(1977.7.16~21)에서 그는 여러 다른 직책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및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차지하여 華國鋒의 지위를 위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국 華를 축출하고 자신의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음. 鄧이 華로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접수한 이래 이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보유했던 공식적인 직책이 되었음. John Gardner, *Chinese Politics and the Succession to Mao* (New York: Holmes & Meier, 1982), p. 125 참조.

없다는 점과 권력서열 2위였던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사망 (1995.2.25) 등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개최된 각종 행사에서 인민군 次帥들의 서열을 상승시켰음.

- 김일성 추도대회(1994.7.20)에서 김일성 사망 이전 40~100위의 서열에 불과했던 호위국장 李乙雪, 김일성종합군사대총장 崔仁德, 사회안전부장 白鶴林, 국방위원 金奉律, 인민무력부 부부장 金光鎭, 당민방위부장 金益鉉 등 차수 6명이 서열 22~27위를 차지하였음.

- 김일성 사망 1백일 추모회(1994.10.16) 때는 백학림, 김봉률, 김광진, 김익현이 17~20위로 부상하였음.

○ 김정일은 군사분야 최고지도기구의 하나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차수 김광진, 김봉률 등의 혁명세대와 대장 박기서, 김명국 등 신진그룹을 새로이 임명¹¹⁾하여 오진우의 사망으로 가속화된 군 지도부의 世代交替를 노·장층의 배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 김일성의 사망이 단순한 권력승계에 그치지 않고 세대교체를

11) 이들 4명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充員은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3.15~16) 참가자 명단을 발표하는데서 밝혀진 것으로서, 군부에 대한 다른 인사도 비밀리에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의미한다는 점과 군부의 지지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식한 가운데 취해지고 있음.

○ 또한 김정일은 실무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초급 지휘관들을 면담함으로써 하층 군부의 지지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91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 주도해왔던 「군·민일치운동」을 통해 전 주민의 軍에 대한 지원을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김정일은 1995년 들어 총참모장 최광, 대장 이봉원, 상장 남상락 등을 동행하고 214부대(1.1)를 방문하였으며, 291부대 여성해안포 중대(2.5), 해군 155부대(2.6)를 차례로 시찰하였음.

- 인민군 제9차 선동원대회(1.28) 및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3.15~16) 참가자들을 면담·격려하는 등 군부에 대해 최근 특별한 관심을 보였음.

○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김정일의 제반 행동은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과도기적 非常體制를 이끌고 있다는 인식하에 군 고위인사를 예우하고 군부의 권위를 제고함으로써 김정일 승계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곧 바로 충성서약을 뒤따르게 함으로써 군부의 지지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

에 김정일이 군 경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김정일의 군사적 기반이 불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군부를 우선시하는 비상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고 볼 수 있음.

IV. 社會統合 強化

1.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를 통한 住民 包容政策

- 김정일 승계체제는 김일성의 통치이념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바, 무엇보다도 김정일이 강조하는 소위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는 그동안 높이 받들여졌던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漂流하는 民心(free floating obedience)¹²⁾을 수습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됨.
 - 인덕정치란 한마디로 정치지도자가 믿음과 사랑으로 인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임.
 - 북한은 이를 통해 카리스마의 空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심리적 動搖를 강압적인 이미지가 아닌 포용적 용어로 抑制시키고자 함.

- ‘인덕정치’의 주된 의도는 인민대중의 성원 여부를 階級的 土臺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상과 행동양식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社會 統合에 역점을 두려는 것인 바,¹³⁾ 이런 의도는 최근 방송에서 진

12)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originally published in 1965), p. 309 참조.

13)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의 주민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출신성분별로 직종과 직위에 차별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북한은 중앙당 집중지도

행되고 있는 「김정일 혁명역사 강좌」에서 잘 나타남.

- 북한은 김정일이 일찌기 당과 주민간의 일체감 제고를 위해 현재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 아래 복잡군중을 포섭해 왔음.¹⁴⁾
- 복잡군중도 사상교양에 의해 개조되면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처럼 혁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김정일은 또한 「친필서한」(1995.1.1)¹⁵⁾을 보내거나 1백세 노인, 일선 당간부 등에 대한 생일상을 하사하는 등 주민들을 포용하려는 시도를 행하고 있음.

2. 組織別 思想教育 強化

○ 북한은 사회단체별, 공장·기업소·협동농장별 충성축구 집회 등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유도 및 주민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사업(1958~1960)을 실시하여 불순분자를 색출하여 처단하거나 강제 이주 시킨 이래, 주민재등록사업(1964~1967)을 통해 백만 적위대 무장을 위해 주민성분을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는 사업(1967~1970)을 전개하였으며, 다시 주민중 검열사업(1980.1~1980.12) 아래 공민중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 및 통제를 가한 바 있음.

14) 「평양방송」, 1994.11.5. 김정일의 계급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진 시기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건대 1980년대 중반인 것으로 보임.

15) 「평양방송」, 1995.1.19.

- 초급당위원회의 주관 아래 각 공장이나 기업소 작업반이나 분조 등을 이용하여 “아버이 수령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이고, 지도자 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 또는 “김정일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를 것” 등을 교양하고 있음.
- 김정일의 등장이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만큼 밑으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상은 靑年 및 靑少年 세대인바, 북한은 사로칭, 소년단, 각급학교 학생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 북한은 김일성 사망 후 金父子의 위대성을 새로이 추가하는 문제를 역사적 과제로 제기하였음.¹⁶⁾
 - 각급학교는 학생영웅 만들기운동 및 김정일풍모 따라배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바, 이는 일부 모범 학생을 영웅으로 만든 후 나머지 학생들이 이들을 본받아 ‘주체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도록 육성한다는 방식임.
- 북한은 또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일성 사후 처음 맞는 그의 생일(1995.4.15)을 성대하게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이미지를 부활시켜 잠재된 체제불만 세력의 출현을 사전에 저지하고자 함.

16) 「로동신문」, 1994.10.7.

- 김정일세대로 자라난 청소년층의 충성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은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덕정치’ 등을 통한 주민포용정책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귀순자들의 면담¹⁷⁾에 의하면 김정일의 복잡계층 포용정책이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7) 김동훈(1995.4.11), 홍금수(1995.4.12), 김광욱(1995.4.13), 김대호(1995.4.14).

V. 實質的 業績 成就를 위한 努力

1. 農業問題 및 生必品不足 解決策 講究

- 김정일 승계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1993.12.8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 및 김일성 1994년 신년사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 즉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특히 식량 등 생필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북한은 이를 의식한 듯 1995년 '신년사'(당보·군보·청년보 명의의 공동사설)를 통해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함.
 - 이를 김일성의 '유훈'으로 삼아 당창건 50주년인 1995.10.10 이전까지 조기달성할 것을 강조하였음.

- 김일성의 교시를 '유훈'으로 관철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은 1994.12.19 평양 만경대구역 협동농장을 國營農場으로 개편한데 이어 평남 숙천군내 20여개 협동농장을 통합하여 「군농업연합기업소」를 설립하는 등 「협동농장의 국영농장 전환」을 위한 단계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김일성은 사망 전인 1994.2.24 「사회주의 농촌체제」 발표 3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

켜야 한다¹⁸⁾고 주장한 바 있음.

- 평양시내 국영 및 협동농장의 「분조장회의」(1995.1.10~11) 및 이례적인 전국 리단위 농근맹 위원장회의(1995.2.1~2)를 개최하여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 및 생산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농업문제 전반에 관한 대책을 토의하였음.

○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태국으로부터 쌀 30만 톤과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5만 4천 톤을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올해 2월 태국으로부터 쌀 30만 톤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음.¹⁹⁾
- 3월에는 미국의 곡물수출회사인 바틀래트사가 옥수수 5만 4천 톤을 이미 선적·출항시킨 것으로 보도됨.²⁰⁾

○ 북한은 김정일이 1984년부터 추진한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김정일의 경제적 업적을 과시하고 지방공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생필품 증산을 독려하고 있음.

-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 10주년(1994.8.3)을 맞이하여 북한의 언론매체는 증산운동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10년 동안 소비품 생산은 3.5배 성장했으며

18) 김일성,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전국 농업대회에 보낸 서한, 1994.2.24),” 「로동신문」, 1994.2.25.

19)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5.2), pp. 97~100.

20) 「東亞日報」, 1995.3.19.

소비품을 생산하는 작업반, 가내작업반, 부업반이 46,500여 개로 증가했다고 선전하였음.

- 김일성의 지방공업에 관한 연설²¹⁾ 25주년을 기념하여 김일성의 유훈 관철 차원에서 군 단위 지방공업의 활성화를 더욱 강조하였음.

2. 對外關係改善 및 經濟協力 強化

○ 북한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 다각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하여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김정일 리더십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문」에 근거한 북·미 양국간의 貿易規制緩和措置(1995.1) 이후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수로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MCI, GM 등을 포함한 11개 미국기업대표단은 1995.2.14~18 북한을 방문하여 나진·선봉지구의 통신망 설치를 비롯한 각 분야의 경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21) 김일성,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70.2.27),”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37~71.

- 북한의 해외동포위원회 부위원장 전경남 등 4명은 美 기독교
실업인단의 초청으로 1995.2.22 訪美하여 구체적인 經協 가능
성을 타진하였음.
- 북한은 북·미협상과정에서 경수로 건설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함과 동시에 「평화협정」 체
결 등의 정치·군사적 성과를 얻어냄으로써 김정일 승계체제를
공고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북한은 또한 일본과의 수교협상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전후 배상
금 원조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북한과 일본은 1992.11 이래 중단된 수교회담을 2년 4개월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1995.3.28)를 발표하였음.²²⁾
 - 김용순은 이 「합의문」에 대해 “조일관계에서 근본문제인 과거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와 재난에 대해 사죄·
보상하고 국교정상화를 해야한다는 원칙적인 요구를 명백히
한 것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과제이
하나라는 점을 밝혔음.²³⁾

22) 김일성 사망 직후 북경 접촉을 통해 양국은 수교를 위한 교섭재개를 논
의한 바 있었음.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국교정상화 교섭재개 선언
(1994.9.30)으로 일본의 수교의지가 다시 가시화되었으며, 이같은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은 「북·미기본합의문」 타결 이후 1995년 1월과 2
월 제3국에서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가진 바 있음. 「東亞日報」, 1995.1.7;
1995.3.10.

- 김정일 정권의 실질적 업적성과는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관계진전 여부 및 일본·남한의 경제지원 등 대외경제협력의 성패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며, 김정일 승계체제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체제의 耐久力의 결정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됨.

23) 「조일회담재개를 위한 합의서」 채택 관련 김용순의 기자회견(1995.4.5).
「중앙방송」, 1995.4.6.

VI. 綜合評價

- 김정일은 승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상징조작, 군사적 권위체제 확립, 사회통합, 경제난 해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불투명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승계체제의 상징적 조작을 위한 북한의 노력은 타 사회주의체제의 경험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象徴的 정당화의 단계로부터 업적 성취를 통한 合理的 정당화 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 이것은 父子間 승계체제라는 독특한 북한적 현상이 낳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권력승계를 世代交替의 문제로 파악하고 하층군부 및 청소년층의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이는 권위구조의 공고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포석으로서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김정일은 군 경력 부재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를 최고사령관에 의해 통치되는 非常體制로 이끌어가는 동시에 김일성의 권위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의 동요를 억제시키면서 社會統수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

- 북한은 또한 ‘유혼통치’의 맥락에서 3대제일주의의 달성과 대외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향상으로 이어지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협동농장의 농업연합기업소 전환 착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투자, 북·미간 무역규제 완화 등에 의한 경제발전 성과는 단기간 내에 가시화되기 힘들 것임.

- 김정일 승계체제의 가장 큰 난점은 카리스마적 리더쉽 부각과 같은 상징적 조작 및 사회통합을 위해 채택한 인덕정치·광폭정치 등이 일정 수준까지는 機能的일 수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임.

-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북·미 핵협상과 북·일수교 등 외교적 난제가 해결되고 경제협력이 뒤따라야 가능한 것인 바, 이 같은 외교적 문제 해결의 지체로 인한 상징적 조작과 보상간의 時間差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김정일 승계체제가 해결해야 할 딜레마임.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供給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值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統一情勢分析 95-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4月 日

發行日 1995年 4月 日
